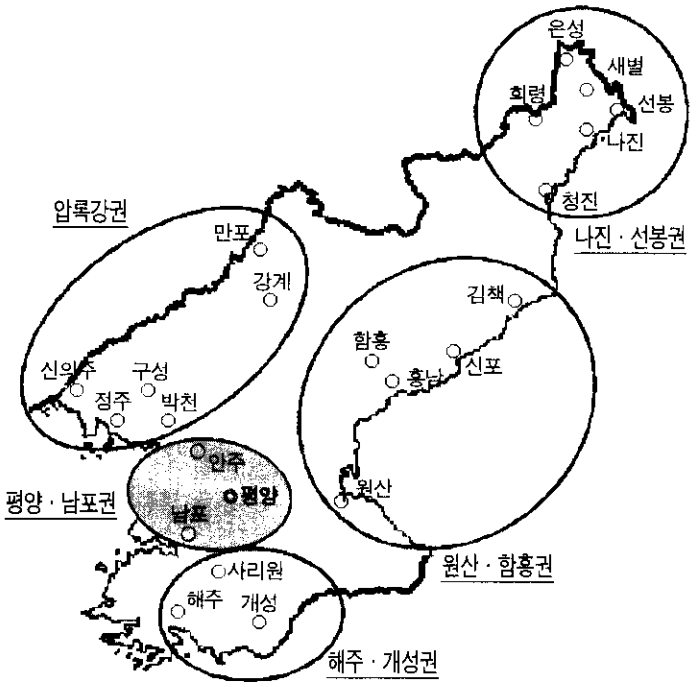
북한경제

권역별 투자 환경(Ⅰ) - '평양·남포권'

황동언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주임연구원



북한을 투자 환경에 따라 크게 5 개의 권역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즉, 신의주, 구성, 강계, 만포를 중심으로 하는 '압록강권', 청진, 나진, 선봉, 회령 등을 중심으로 하는 '나진·선봉권', 평양, 남포, 안주, 박천을 중심으로 하는 '평양·남포권', 원산, 함흥, 흥남, 김책을 중심으로 하는 '원산·함흥권', 해주, 개성, 사리원을 중심으로 하는 '해주·개성권'이 바로 그것이다.

각 권역은 북한 당국의 지원 가능성, 대외 접촉 용이성, 기존 공업 지구와의 관련성, 기반 시설의 편의성 등에 따라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을 주로 산업 기반, 사회간접자본 기반, 대외 개방 수준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라 각 권역에 적합한 투자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평양·남포권'은 남한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유사한 지역이다. 수도권의 특징상 경제력이 상당히 이 권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여러 기반 시설 역시 북한 내에서는 상당히 잘 갖춰진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북한내 투자 전망이 좋은 지역이며, 이 곳에 대해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평양·남포권' 개황

'평양·남포권'은 크게 평양, 남포 및 평안남도를 총칭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로는 평양과 남포가 있다.

평양시는 1946년 특별시로 지정된 북한의 수도이다. 1991년 현재 인구는 약 330만 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18 개 구역 4 개 군으로[1] 구성되어 있다. 남포시는 1979년 12월부터 직할시로 승격된 항구 도시로서 평양특별시, 개성직할시에 이어 북한 제3의 도시이다. 평양 서남방 48 km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는 약 80만 명이다. 공업 중심지 및 국제 무역항으로서 북한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남포시는 크게 5 개 구역과 1 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995년 북한의 GNP는 223억 달러, 1인당 GNP는 957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이어서 '평양·남포권'의 1인당 GNP는 북한 전체 1인당 GNP에 비해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비해 소비 수준 역시 상당히 높을 것이다.

남포 지역은 해방 전 西鮮공업지대에 속해 있으면서 석탄, 석회석, 목재 등의 풍부한 자원뿐만 아니라, 압록강의 수풍발전소와 강계발전소 등 풍부한 전력을 바탕으로 최대의 전기·화학 공업 지대였다. 해방 후 해안 부근

〈표 1〉 평양공업지구 개황

중심 도시		- 평양, 남포, 대안, 송림, 사리원
특화 공업		- 전기·전자, 정밀 기계, 철강, 조선, 판유리, 방직, 식료
입지 조건	자원	- 평양 남부·북부의 무연탄, 승호 지역의 석회석, 은율의 철강
	전력	- 수풍·미림, 북창·평양, 남포·순천
	공업 용수	- 대동강
	교통 및 항만	- 철도, 도로의 중심지: 평양~원산, 평양~개성간 고속도로 및 경의·평원·평남선 - 대동강 하구~남포간 수로 - 남포항

자료: 이옥희·이봉희, "북한의 도시 및 지역 개발에 관한 연구", 「92 북한·통일연구논문집(3)」, 통일원, 1992, p. 440

1) 현재 북한의 행정 구역은 9도 1특별시(평양) 2직할시(개성, 남포) 148군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시는 구역과 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에 포함되어 있는 군은 외곽 지역에서 시로 편입된 지역이다.

의 공업 지대 이외에 평양공업지구가 새로이 개발되었다.

북한 공업 지구는 크게 9대 공업 지구로 나누어진다.[2] 이 가운데 '평양·남포권'에 해당하는 공업 지구는 평양공업지구라고 할 수 있다. 평양공업지구는 경공업과 중공업이 집중된 종합 공업 지역이자 집약화된 농업 지역으로 북한 최대의 경제 중심지이다. 이 지구는 남포, 대안, 사리원, 송림 등 평양 수도권의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평양이라는 정치·경제·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력, 금속, 화학 등 각종 산업이 배치되어 있다.

투자 환경

주요 산업 기반

평양은 평양공업지구의 중심 도시로서 중공업과 경공업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중공업 부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계 공업으로, 주요 제품으로는 운수·전기·건설·탄광·공작·정밀 기계 등이 있다. 경공업 부문에서는 방직 공업, 신발 공업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남포의 주요 공업 부문은 기계·유색 금속·유리·편직물·식료·화학·일용품·건재·신발 공업과 광업 및 제염업 등으로, 이 가운데 기계 공업, 유색 금속 공업, 유리 공업은 북한 지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다. 금성트랙터공장, 대안기계공장 등이 있으며, 1만 톤급 이상의 건조 능력을 가진 남포조선소가 있다.

○ 기계 공업

평양·남포 지역은 북한 최대의 기계 공업 지대이다. 평양에는 100 개 이상의 기계 공업 공장이 있는데 주로 전기, 공작 기계, 운수, 건설, 농기계, 경공업 기계, 케이블선 생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대표적인 공장으로는 만경대기계공장, 평양공작기계공장, 평양정밀기계공장 등이 있다. 이 지역에서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는 만경대공작기계공장이 2급 기업소 정도로서, 특급 기업소인 희천공작기계연합기업소,[3] 구성공작기계공장에 비해

2) 공업 지대는 해안 공업 지대와 내륙 공업 지대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해안 공업 지대는 또 다시 서해안과 동해안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서해안 공업 지대로는 신의주공업지구, 평양공업지구, 해주공업지구가 있으며, 동해안 공업 지대에는 청진공업지구, 김책공업지구, 함흥공업지구, 원산공업지구가 있다. 내륙 공업 지구로는 강계공업지구와 안주공업지구가 있다.

3) 연합기업소란 밀접한 연계를 가지면서도 서로 구별되는 몇개 생산 공정 또는 생산 부문을 결합시킨 기업소를 말한다. 예를 들어, 채광, 선광, 제철, 제강, 압연 등의 생산을 포괄한다든지, 원유를 가공하여 내연 기관 연료, 윤활유, 합성 고무, 비닐, 화학 섬유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표 2〉 평양의 주요 기계 공장

	생산 품목	비고
만경대공작기계공장	- 탁상 선반, 미싱 · 밀링머신	- 2급 기업소 - 생산 능력:3,000 대
평양공작기계공장	- 선반, 연삭기, 프레스 등 일반 기계 - 소형 공작 기계	- 2급 기업소 - 생산 능력:1,000 대
평양정밀기계공장	- 재봉기: 10만 대 - 시계: 5만 대 - 저울, 확대기, 전자콤파스	- 1급 기업소
평양도량형공장	- 각종 저울, 체중계, 계기	- 2급 기업소
평양건설기계공장	- 탄차, 권양기, 철지주, 탄광 설비, 엘리베이터, 유압 설비	
평양탄광기계공장	- 탄차, 권양기, 체인 콘베이어	- 1963년 확장 공사

자료: 한국산업은행, 「북한의 산업」, 1995, p. 79, 80, 83.

서는 규모가 떨어지는 등 규모 자체는 작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공장이 있다는 점이 이 지역의 특징이다.

○ 금속 공업

평양 · 남포권에서 금속 공장의 대부분은 남포에 집중되어 있으며, 남포제련소를 제외하면 그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다.

제철소로는 남포에 강선제강연합기업소,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4 · 13제철소가 있다. 이 가운데 강선제강연합기업소와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의 규모가 비교적 커서, 강선제강연합기업소의 경우 연 생산 능력이 선철 40만 톤, 압연 강재 45만 톤 정도에 달한다. 주요 생산품으로는 선철, 강철, 압연 강재, 로프, 아연판, 용접봉, 합금강 등이 있다.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는 주요 생산품이 특수강 및 압연 강재인데, 이 가운데 제강 생산량은 76만 톤, 압연 강재 생산 능력은 55만 톤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비철금속의 경우 남포시 항구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남포제련소가 있는데, 전기동, 아연, 황산동, 금, 은, 동판, 동관, 동선 등을 제련하는 북한내 최대의 제련 공장으로서 연간 생산 능력은 동 14.7만 톤, 아연 약 2만 톤, 조강 15만 톤, 전기 아연 2.4만 톤 등이다. 이외에도 카드뮴, 게르마늄, 수은과 비료도 생산하고 있다.

○ 전기 · 전자 산업

북한의 전기 · 전자 산업은 크게 낙후되어 있으며, 특히 전자 산업은 모든 산업 부문 가운데 가장 낙후된 것으로 보인다.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공장이 평

〈표 3〉 '평양·남포권'의 주요 전기·전자 공장

부문	공장명	비고
전기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 최대 전기 공장 - 발전기, 변압기, 모터, 대형 전기 기계, 고속 전동기
	비류강전기종합공장	- 각종 반도체, 직립 회로, 녹음기 등
	10월5일공장	- 전구, 송풍기, 다리미, 전동기, 소켓 - 종업원 수 1만여 명
	3월26일공장	- 케이블, 코일 등
	대동강축전지공장	- 자동차 축전지 120만 개 생산 능력
	용성전선공장	- 케이블, 축전기
	봉화계기공장	- 각종 테스터
전자	남포통신기계공장	- 라디오, TV, 전축, 무전기, 전화기, 교환기, 콘덴서, 변압기 등
	평양통신기계수리공장	- 반송 전화기, 전화기, 측정기
	평양통신기계공장	- 전화기, 자동교환기, 전화선, 교환대
	대동강TV조립공장	- TV 조립
	평양TV조립공장	- TV 조립
	평양집적회로공장	- 전자 일용품, 집적 소자, 반도체 소자
	평양컴퓨터공장	- 회로판 생산 설비, 각종 컴퓨터와 소형 계산기

자료: 한국산업은행, 「북한의 산업」, 1995, p. 126.

양·남포권에 집중되어 있다.

북한 최대의 전기 공장인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와 북한 핵심 공장 가운데 하나인 남포통신기계공장이 이 지역에 있다.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는 중국의 지원으로 건설되었으며, 대표적인 생산품으로는 화력 터빈, 수력 발전기, 변압기, 1만 kW 모터, 대형 발전기의 축과 몸체 등이 있다. 남포통신기계공장은 종합 전자 기기 생산 공장으로서, 라디오, TV, 유선 방송기, 전화기, 교환기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 조선 공업

북한의 주요 조선소는 크게 원산, 청진, 신포, 남포 등에 위치해 있다. 조선소가 보유하고 있는 조선대를 기준으로 볼 때, 원산조선소의 최대 건조 가능 선박은 3만 톤급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그러나 건조 실적으로서는 원산조선소가 1만 4,000 톤급에 머물러 있는 반면, 남포조선소가 일반 화물선의 경우 1만 톤급에 이르고 있으며, 냉동 운반선을 비롯한 어선도 건조 가능하여 북한 최대의 조선소라 할 수 있다.

남포조선소는 건조 최대 선박이 2만 톤급으로 종업원 수가 3,000 명에 이른다. 또한 선박 건조 실적이 활발한 조선소로서 주변에 철강, 기계, 금속, 전기 등 관련 산업이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어 계속 발전될 전망이다.

○ 경공업

북한은 전통적으로 중공업 우선 정책과 자력 갱생을 통한 대내 지향적 공업화 정책을 산업 정책의 양축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기술 노후화 및 생활 필수품 부족이라는 체제 위기적 현상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1993년 12월 북한 정부는 제3차 7개년 계획(1987~93년)의 실패를 시인하면서 농업, 경공업, 무역의 발전을 완충기(1994~96년) 사업의 중점 과제로 제시하였다.

우선, 화학 섬유 공업의 경우 평양과 약간 떨어진 안주, 순천에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와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가 있는데, 여기서 아닐론, 비날론 등을 생산하고 있다.[4] 한편, 평양은 북한 최대의 방직 공업 중심으로 전국 총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 최대의 방직 공장인 평양종합방직공장에서는 현재 원료에서 직물 생산까지 일괄공정체제를 갖추어 면방적 20만 추의 설비 시설을 갖고 있으며, 1990년 현재 1억 m의 각종 직물을 생산하고 있다.

식품 공업의 경우 일부 대형 공장은 평양 일원에 집중되어 있고, 각 시군별로 분산된 공장들에서 각종 식품을 지역에 공급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평양에서는 북한 최대의 평양곡산공장이 있는데, 이 곳에서는 물엿, 포도당, 정제유, 각종 장류 등을 생산하고 있다. 그밖에도 육류 통조림, 버터 등을 생산하는 평양의 용성육류공장과 소맥분을 생산하는 남포제분공장 등이 있다. 기타 경공업 부문에서는 평양구두공장, 평양종이공장, 용성맥주공장, 용성담배공장 등이 있다.

사회간접자본 시설 현황

'평양·남포권'의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부문은 항만이다. 그것은 현재 남북 교역에서 직접 수송이 가능한 운송방법이기 때문이다. 남북한간의 항로는 1991년 이전에는 제3국을 경유한 노선만이 운항되었으나, 1991년 이후 남북한간의 교류가 본격화되면서 인천~남포간 항로가 개설되어 있다.

○ 남포항

남포항은 평양시 서남쪽 약 70 km 지점의 대동강 하류에 위치해 있으며, 평양과 이어지는 고속도로 및 전기 철도가 건설되어 있어 배후 지역인 평양공업지구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만조시 수역 수심은 12~13.5 m, 항로 수심은 16~25 m 정도이고, 서해 갑문의 완성으로 조류는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이

4) 이것들은 선진국에서 이미 시양화된 제품이다.

며 주간에만 입출항이 가능하다.

남포항은 서해안 최대의 무역항 및 주요 군항이다. 총 부두 연장은 약 2,000 m로서 9개의 부두가 있으며, 외항선 15 척의 정박이 가능하다. 남포항은 최대 선박 접안 능력이 2.5만 톤급으로 인천항의 5만 톤급에 비하면 개발의 여지가 많다. 연간 하역 능력은 800만 톤 정도로 청진항과 동일하며, 북한 무역항 가운데서는 높은 하역 능력을 가지고 있다. 주요 화물로는 석탄, 시멘트, 흑연, 석고 등의 수출 화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소맥, 사료, 인광석, 기계 및 잡화 등의 수입 화물도 처리하고 있다. 연간 입출항 선박은 400~500 척으로 중국을 위시하여 러시아, 동유럽, 일본 등을 왕래하고 있다.

서해 갑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서해 갑문을 건설함으로써 남포항은 최대 12 m에 이르는 황해의 간만차를 극복, 5만 톤급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하게 되고 있다. 또한 갑문과 댐 위로는 철도와 도로가 부설되어 있어, 이를 통해 평양을 기점으로 사리원, 중화로 이어지는 大環狀線 철로가 형성됨으로써 석탄, 철광석 등 공업 원료의 원활한 공급 및 화물 유통에 기여하게 되었다.

또한 남포항은 서해 제1의 국제 무역항인 만큼, 해운, 철도, 도로 등이 북한의 타 지역에 비해 발달되어 있고 중국의 청도, 천진, 대련 등과 연결되어 있다.

'평양 · 남포권'에서는 대동강 내륙 수로를 통해 남포와 평양, 순천을 연결하고 있다. 그 길이는 260 km에 달한다. 북한의 내륙 수운은 주로 광석, 건축 재료, 양곡, 석탄, 소금 등을 수송하며, 동시에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생활 필수품 및 여객 운송을 담당하고 있다. 남포에서 평양까지 통행할 수 있는 선박은 1,000 톤급 선박이며, 1955년부터 평양~남포~신환포

〈표 4〉 남포항 주요 현황

부두 길이	2,000 m
최대 수심	13.5 m
접안 능력	2.5만 톤
하역 능력(A)	800만 톤
취급량(B)	300만 톤
시설 활용도(B/A, %)	37.5%
주요 취급 화물	석탄, 시멘트, 곡물, 일반 잡화
특징	- 평양과 고속도로, 전기 철도 연결 - 동항은 석탄 부두로 사용

자료: 남궁 영,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실태 분석」, 민족통일연구원, 1994, p. 38, 43.

5) 대동강 하구의 남포시 영남리에서 황해남도 은율군 송곡리 간 8 km에 이르는 방조제를 쌓아 만든 갑문으로서, 36개의 수문, 2 개의 개폐교, 바지선과 어선용 · 5만 톤급 선박용 · 중형 선박용의 3 개 갑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5〉 '평양 · 남포권'의 주요 철도 현황

노선	구간	연장(km)
평남선	평양~남포	55.0
평덕선	평양~덕천	165.1
평부선	평양~봉동	199.3
경의선	개성~사리원~평양~신의주	423.0
평나선	평양~나진	819.0
평안선	남포~온천	34.7

자료: 통일원, 「북한 산업 지리도」, 1991, p. 9.

간에 정기 여객 선박이 운항되고 있다.

○ 철도

철도는 1991년 현재 화물의 90%, 여객의 62% 가량의 수송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수송 방식인데, '평양 · 남포권'과 연계되어 있는 주요 노선으로는 경의선, 평남선, 평덕선, 평나선 등이 있다. 평남선은 평양과 남포를 잇는 짧은 노선으로 1979년 남포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전철화되었다. 평남선 기양역과 대안리 사이에는 연장 15 km의 철도가 부설되어 공장 물자를 수송하고 있다. 경의선은 개성과 평양, 신의주를 잇는 중요한 서해안축 철로이며, 평나선은 평양과 나진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북한의 수도권과 나진 · 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 연결하는 노선이라 할 수 있다.

○ 도로

북한의 고속도로는 거의 평양을 기점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 도로도 평양이 중심이 되고

〈표 6〉 '평양 · 남포권' 주요 도로 현황

구간		주요 경유지	개통 시기	거리	노폭	비고
고속도로	평양~순안		1977년	15 km	-	1987년 확장, 순안 공항과 평양 연결
	평양~남포		1978년	53 km	7 m	
	평양~원산		1978년	172 km	-	콘크리트 도로, 비상시 활주로로 이용
	평양~개성	사리원, 평산, 금천, 개성	1992년	168 km	24 m	4차선, 아스팔트
일반도로	평양~원산	상원, 율리, 곡산		172 km	7 m	
	평양~남포	대안		50 km	5.5 m	
	평양~강동			42 km	-	
	평양~신계	율리, 수안		195 km	-	

자료: 한국관광공사, 「남북한 관광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1992.
통일원, 「북한지지요람」, 1993, pp. 16~17.

있어, '평양·남포권'의 도로 상황은 북한 내에서 가장 양호하다. 특히, 평양~남포간에는 1978년에 기존 일반 도로와 병행하는 준고속 도로가 개통되어 있어 남포항으로 출입하는 화물 운반 및 관광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이외에 항공 수송은 국내선의 경우 평양~함흥~청진간 정기 노선이 하루 1 회 왕복 운항되고 있으나 이용 실적은 거의 없고, 그밖에 부정기 노선이 존재한다. 국제 수송의 경우 평양~북경, 평양~모스크바, 평양~하바로프스크간에 주 1~2 회의 정기 노선이 운항되고 있으며, 東京, 동구, 중동간에는 비정기 노선이 운항되고 있다. 평양권의 공항으로는 순안 공항이[6] 있는데, 북한 유일의 국제 공항이다.

대외 개방 수준

일반적으로 북한의 개방 수준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 뒤쳐져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은 80년대에 합영법을 통해 외자 유치를 시도하였으며, 90년대에 들어와서는 나진·선봉에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는 등 경제 특구 설치를 통해 개방을 추진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7]

그러나 구체적 성과없이 현재는 '평양·남포권'의 경우가 오히려 대외 개방의 측면에서 더 많은 외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실제 외국인 기업 투자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외국인 투자의 특징을 몇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일본 기업 비중의 우위이다. 국별 투자 실적을 보면, 1994년 말 현재 총 124 건 가운데 일본이 107 건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조총련계 기업에 의한 이른바 '朝朝' 간 투자가 대부분이다. 그뒤를 이어 구소련과 중국이 각각 5 건을 기록하고 있다.

둘째, 경공업 투자 비중의 우위이다. 1993년 말 현재 업종별 투자 실적을 보면, 경공업이 전제 투자 건수 가운데 31.1%, 서비스업이 22.3%, 농수산물이 16.2%를 차지하고 있다. 그에 비해 금속 기계나 전기·전자 산업은 각각 8.8, 4.7%에 불과하다.

셋째, '평양·남포권' 비중의 우위이다. 지역별 투자 진출을 보면 대부분이 '평양·남포권'에 집중되어 있다. 총 148 건에서 투자 지역이 알려져 있는 투자 83 건 가운데 평양·남포에 투자한 경우가 58 건에 달하고 있다.[8]

6) 평양 중심에서 북쪽으로 약 22 km 거리에 있다.
7) 그러나 '나진·선봉권'은 아직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아직까지 커다란 진척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 투자 실무」, 1995, pp. 195~200.

〈표 7〉 '평양 · 남포권'의 남북한 경제 협력 사업자 승인 현황

기업	승인일	사업 내용(만 달러)	규모 (만 달러)	북측 회사	투자 지역
(주)대우	1992. 10.5 (1995. 5.17 협력 사업 승인)	셔츠 · 블라우스(283) 가방(114) 쟈켓(115) 등 10 개 사업	512	삼천리총회사	남포공단
(주)한일합섬	1995. 6.26	스웨터(250), 봉제(110) 모포(220), 방적(400)	980	조선은하무역총회사	남포
(주)국제상사	1995. 6.23	신발	350	조선은하무역총회사	남포
(주)녹십자	1995. 9.15	의약품 (유로키나제)	300	광명성총회사	평양시 대동강 또는 용성 구역
(주)대우전자	1996. 4.27	컬러 TV, 전자레인지, 세탁기	640	삼천리총회사	남포

자료: 통일원.

공업 투자의 경우 대다수가 '평양 · 남포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계 공업의 경우 북한 진출 기업은 주로 평양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투자국은 구소련, 일본, 덴마크 등이다. 이 가운데 덕천건설기계합영회사는 1989년에 설립되어 불도저 · 크레인을 수리하며, 1991년에 설립된 금영합영회사와 금별합영회사(수도꼭지 생산)와 1992년에 설립된 조 · 덴국제회사(경공업 용기 생산) 등은 생산 품목으로 보아 공장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속 부문 외국 진출 기업도 거의 평양에 투자하고 있으며, 일본 조총련계로서 북한에 설립한 기업은 알루미늄 새시, 금속류 등을 생산하는 중소 규모 합영 기업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평양 · 남포권'에서 외국인 투자 등 대외 개방 정도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남한 기업의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남한 기업이 남북한 경제 '협력 사업자'[9] 승인을 받은 총 11 건 가운데, '평양 · 남포권'에 투자하는 경우가 5 건으로, 총 사업자 승인 가운데 거의 50%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남북한 경제 협력 사업 승인을 받은 (주)대우의 경우도 남포에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10]

(주)대우의 경우 합영 투자 방식[11]을 취하고

9) 협력 사업자 승인이란 북한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10) (주)대우의 남포 공단 사업은 1996년 1월 26일 북한 대외경제위원회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아 평양시 행정경제위원회에 법인 설립 등록을 하는 등 행정 절차를 마쳤다. 그 이후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원 구성, 이사회 운영 등 회

〈표 8〉 (주)대우 남포공단의 세부 사업 내용

구분	셔츠·블라우스	자켓	가방
연간 생산 규모	6 개 라인 310만 5,000 장	8 개 라인 60만 장	3 개 라인 95만 4,000 장
투자 금액(대우측)	282.7만 달러	115.5만 달러	114.0만 달러
고용 규모	491 명	662 명	195 명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 투자 실무」, 1995, p. 245.

있으며, (주)대우와 삼천리총공사가 각각 50%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하였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표 8>에서 보는 것처럼, 총 6 개 라인을 설치해 연 310만 5,000 장의 셔츠 및 블라우스를 생산하는 등 총 투자 규모는 512만 달러에, 고용 규모는 1,348 명에 이른다. 이와 같은 점으로 보아 단기적으로 '평양·남포권'에 대한 투자 선호도는 높다고 볼 수 있다.

투자 환경 평가 및 진출 방안

투자 환경 평가

'평양·남포권'은 경제 협력 사업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은 권역의 사회적·지리적·산업적 특징에서 기인하는데, 먼저 '평양·남포권'의 장점을 생각해보도록 하자.

첫째, 북한의 대외 개방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받는 곳은 북한이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한 '나진·선봉권'일 것이다. 그러나 '나진·선봉권'의 경우 아직까지 외국 기업의 투자가 불투명하며, 북한 정부의 지원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이에 반해, '평양·남포권'은 기존의 시설을 기반으로 투자의 위험도가 높지 않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평양·남포권'은 사회간접자본 실태가 북한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투자하기가 상당히 용이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나진·선봉권'은 각종 우대 조치가 주어지지만,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현재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다.

셋째, '평양·남포권'은 기존의 평양공업

11) 북한의 외국 투자 기업 유형은 크게 합영 기업, 합작 기업, 외국인 기업으로 나뉜다. 합영 기업은 북한과 외국인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운영하는 유한 책임 회사를 일컬으며, 출자 지분에 따라 경영 이윤과 기업 해산시 잔여 자산이 귀속된다. 반면, 합작 기업은 북한과 외국인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하되, 북한측이 운영하며 외국인 투자분의 상환과 이윤 분배를 투자 비율과 관계없이 계약 조건에 따르는 기업 형태이다. 현재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투자는 합영 기업 형태이다.

지구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과 연계해서 투자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특히, 평양공업지구는 북한내 가장 중요한 공업 지구로서 경공업과 중공업을 막론하고 여러 산업이 입지해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다양한 투자 진출에 유리하다. 또한 북한의 수도권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북한 내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이점도 생각해볼 수 있다.

넷째, 서울·인천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점, 중국·남한·북한간 삼각 국제 분업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 원부자재의 조달이 다른 권역에 비해 쉽다는 점 등도 '평양·남포권'의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평양이라는 중심 도시와 남포라는 항만 도시가 해운, 도로, 철도 등으로 잘 연결되어 있어, 남포항을 중심으로 남북 경협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남북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남포항은 ① 평양, 남포 공단을 대상으로 위탁 가공용 원부자재의 반입 및 완제품의 반출, ② 평양 및 주변 지역에서 소요될 남한의 컨테이너화된 공산품의 반입, ③ 북한의 시멘트, 석탄, 흑연, 석고 등의 대남 반출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2]

또한 이 지역에서 중국·남한·동남아로 진출하기가 유리하며, 실제로 남포항의 주요 항로도 이 지역으로 뻗어 있다. 특히, 중국과의 항로는 남한·북한·중국간 삼각 무역이 활발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표 9〉 남포항의 주요 항로

선박 회사	개설 시기	항로
북·중 항로 (중국원양수송공사)	1964	남포~상해
북·일 항로		
(아시아해운)	1962	남포~도쿄, 요코하마, 오사카, 고베
(영화해운)		청진, 흥남, 남포~고베, 오사카
(동해선박)	1964	나진, 흥남, 남포~오사카, 고베, 도쿄, 요코하마
(공동통상)	1972	남포~나가사키
동남아 항로		
(동해선박)	1964	일본(오사카, 고베, 도쿄, 요코하마)~북한(청진, 흥남, 남포)~홍콩(양광)
(동해선박)	1965	일본(오사카, 고베, 도쿄, 요코하마)~북한(청진, 흥남, 남포)~캄보디아(콤퐁손, 하이퐁)

자료: 남궁 영,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실태 분석」, 민족통일연구원, 1994, p. 38, 43.

12) 김성훈 외, 「남북 경협의 현장」, 시민의 신문사, 1996, p. 127.

일본 항로나 동남아 항로가 개설되어 있어 중국이나 러시아와 주로 교역하던 이전과 달리, 새로운 교역 파트너를 찾아야 하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리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뿐만 아니라, '평양 · 남포권'에서 남한 전용 공단을 조성하여 산업 분야별 진출을 시도한다면 수평 · 수직 분업 상의 이점을 살릴 수도 있다. 전용 공단을 조성하여 북한으로 진출하는 방안은 ① 특정 지역에 한정함으로써 체제 상의 차이에 따른 마찰을 극소화할 수 있으며, ② 공단 조성과 관련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이 집중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 경제적이며, ③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진출한 경우 기업의 부담이 경감되고 위험이 분산되어 투자의 안정성이 높아지며, ④ 동일한 조건으로 생산활동에 필요한 전력, 용수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⑤ 남북한간 별도의 협약에 따라 전용 공단이 특수 지위를 부여받게 됨으로써, 북한의 외자 유치 관련법상 미비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게 된다.[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역이 가진 단점 역시 무시할 수 없다. 가장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정치적 민감성이다. '평양 · 남포권'

〈표 10〉 나진 · 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와 남포 · 해주공단의 특성 비교

구분	남포 · 해주	나진 · 선봉
경협의 성격	· 주로 남북간 경협	· 주로 다자간 경협
경제권	· 環황해경제권	· 環동해경제권
주요 목표 시장	· 한국 내수 시장, 對中 수출	· 미국 · 일본 시장
주요 유치 업종	· 수출 지향형 경공업	· 수출 지향형 경공업, 인프라 투자
가능 투자 유형	· 위탁 가공 및 합자 · 합작 투자 위주	- 100% 단독 투자 허용
위탁 가공 허용 여부	· 단지 밖에서의 위탁 가공 불가	· 지대 밖에서의 위탁 가공 불가
중앙 정부 지원	· 지원 불명확	· 강력한 제도 · 정책 상의 지원
정치적 민감성	· 매우 민감. 당의 지도 강력	· 덜 민감. 당의 지도는 형식적일 가능성 큼
노동력 우선 공급	· 관련 정책 불명확	· 명확
해고 가능성	· 해고 불가능	· 규정상 해고 가능
결제 통화	· 북한 원	· 경화와 외화 바꿈돈표의 사용
조세 상의 감면	· 없음 - 25%의 기업 소득세율	· 구체적 조치 있음 - 14%의 기업 소득세율 - 3 년 면제, 2 년 반감
관세 감면	· 관세	·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 수출입 물자는 무관세
입출국 수속	· 비자 필요	· 무역 지대 밖을 경유하지 않을 때는, 사증 없이 초청장만으로 입국 가능 · 5 일 전 무역 지대 당국에 명단 통보 요 · 관광시는 관광증 필요

자료: 김익수, "북한 경제 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경제 협력 활성화 방안", 「남북한 경제 교류와 투자 전망」, 한세정책연구원, 1994, p. 111.

은 북한의 요지이기 때문에 정치적 변화에 아주 민감한 지역이다. 그러므로 정치적 불안정 요소가 존재할 때, 이 권역의 외국인 투자 기업 역시 커다란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나진·선봉처럼 자유경제무역지대와 같은 제도 상의 투자 지원이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가능한 단독 투자가 거의 불가능하다거나, 북한측의 동의없이 노동자의 해고가 불가능하며, 세제 상의 지원이 없다는 점 등은 기업으로서 고려해야 할만한 사항들이다.

그리고 남북한간에 현재 인천~남포간 항로가[14] 있으나, 이는 비정기적으로 운항되고 있기 때문에 배 스케줄을 잘 모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 제3국적선만 운항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외에도 남포항을 비롯한 북한의 항만에는 수산물 처리를 위한 아무런 시설이 없어, 이들 상품의 對북한 교역을 위해서는 수입측에서 보냉차, 냉장 창고, 포장 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한다.

결국, 이러한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한 뒤, 적당한 투자 방식 및 유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투자 진출 방안

'평양·남포권'에 진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진출 방안을 투자 지역별·업종별·방식별로 나누어살펴보면, 먼저 지역적으로는 평양, 남포 모두 장점을 가지고 있다. 평양의 경우는 북한의 수도로서 사회간접자본 시설 및 수요 조건, 그리고 인접한 공업지구 등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평양보다는 남포가 상대적으로 보다 유리하다고 생각된다.

남포는 남포항을 기반으로 항만 시설이 발달하여 남한 및 중국으로의 수송 및 화물 처리가 용이하며, 평양과도 도로, 철도, 수로 등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 점, 노동력이 풍부하며, 공업 용수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 그리고 남한 전용 공업 단지가 설치되고 있어 수평·수직 분업 상의 이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점 등 평양에 비해 유리한 여러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평양에 투자하는 경우, 평양이 가진 정치적 속성상 투자 위험이 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바람직한 투자 업종을 살펴보면, '평양·남포권'에서는 단기적으로 위탁 가공 무역이나 對中 수출 지향형 경공업에 대한 투자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외화 획득이 용이한 수출 지향적 산업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북한의 의도와도 일치한다. 위험 부담이 적고

13) 황의각 외, 「북한 시장 진출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업체연합회, 1996, p. 226.
14) 항로 길이는 약 393 km이다.

자본 회수가 신속하며, 북한 시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인해 남한측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업종이 유리하다. 또한 노동 집약적 산업의 대북 투자는 경쟁력 제고와 함께 생산 설비의 효율적 재배치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의류업의 경우 몇몇 의류 업체들이 제품을 일본 등지에 수출하여 호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투자 효율성이 높다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북한 지역 가운데서도 탄탄한 공업 기반을 가진 '평양·남포권'에 대한 중화학 공업 및 일반 전기·전자 공업의 진출도 고려해볼 수 있다. 즉, 수출 및 노동 집약 산업에서 자본·기술 집약 및 내수 지향 산업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수 있다.[15] 구체적으로 전기·전자 산업은 남북한간 기술 수준의 차이가 상당히 존재하지만, 북한 대내외 수요 전망 및 권역 상의 지리적 조건, 노동력 조건 등으로 보아 유망한 협력 분야로 생각할 수 있다. 조선 건조·수리업도 남포항이라는 유리한 항만 조건과 남한과의 연계 등을 고려할 때 가능성있는 협력 사업이며, 자동차 산업 그리고 수도권을 둘러싼 건설업 등도 상당히 유망한 종목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투자 형태로는 기본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임가공 형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평양·남포권'에서는 단독 투자가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으므로,[16] 북한이 선호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한 합영 투자 방식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공동 경영으로 인해 효율적 운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합작 투자의 경우, 투자 위험이 작고 자본 회수 기간이 짧은 위탁 가공 교역에 적합하다.

마지막으로, '평양·남포권'을 남북 교류를 위해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점은 수송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남포와 인천간에 항로가 개설되어 있지만, 제3국적선만 이용 가능하다는 점과 정기선이 아니라 비정기선이므로 왕복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내륙 수송이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 교류상 발생하는 비용 역시 막대하다. 따라서 대북 교류의 진전과 더불어 남북한 정부 사이에 운송체계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5) 이것은 통일을 위한 산업 재배치라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16) 현재 단독 투자가 허용된 곳은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뿐이다.